

#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4월 27일 발행 (월간 · 비매점)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 · 편집인 이정환(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이세인 · 김재극/(인쇄 · (주)문우사)

## “자랑스러운 연구원 만드는데 힘 모으길”

### 개원 26주년 맞아 정체성 확립해 새출발



우리 연구원은 개원 26주년을 맞아 정체성을 확립해 꿈을 이루어 나가자고 다짐

우리 연구원은 개원 26주년을 맞아 4월 3일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연내에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다짐했다.

1978년 문을 연 우리 연구원은 26년 동안 1천 7백여권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정체성 확립해 목표 향해 정진

이날 개원 26주년 기념식에서 이정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탐구와 협동하는 문화를 추구하며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어 왔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밑문을 열었다. 이어 이 원장은 “올해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정체성을 공유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 가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힘이 결집되어 우리가 소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다같이 힘을 모아 모든 이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구원, 가장 다니고 싶은 자랑스러운 연구원을 만들

어 나가자”고 제창했다.

#### 장기근속 포상, 우수직원 표창

개원 26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직원 포상과 우수연구과제 포상, 우수직원 표창, KMS 지식등록 마일리지 실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다.

연구원 20년 근속자는 윤호섭 선임연구위원, 박성계 연구위원, 오내원 연구위원, 최경환 연구위원, 허영구 전문연구위원이고, 10년 근속자는 노영숙 주임 연구위원으로 포상을 받았다. KREI 우수직원상은 유규중 선임관리원과 한근수 전문연구위원이, 효행상은 이병훈 연구위원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연구원 보고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벤처농기업을 실패와 활성화 방안’이며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전일송 전문연구위원, 김종선 전문연구위원이 연구자로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했다.

경제사회연구회 우수과제상은 송미령 부연구위원, 박석두 연구위원, 김수석 부연구위원, 성주인 전문연구위원이 연구한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

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수상했다.

#### 우수연구 5과제 선정 포상

연구원 우수과제상은 이계임 부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위원이 연구한 ‘쌀 소비행태 분석’ 연구와 임송수 부연구위원 김상현 연구위원이 연구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방안’을 비롯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김태근 부연구위원, 김배성 전문연구위원, 이병훈 연구위원이 연구한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어명근 연구위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정정길 연구위원, 허주영 연구위원이 연구한 ‘동북아 농업구조 및 농산물 교역분석’ 연구가 각각 수상했다.

KMS 지식등록 마일리지 우수 실적자는 권태진 연구위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박혜진 연구위원, 이경미 연구위원, 김은정 주임기능원이, 우수등록자는 김창길 부연구위원, 박주영 연구위원, 이규천 연구위원, 김동원 전문연구위원, 옥치목 1급관리원, 삼금섭 1급관리원이 각각 수상했고, 우수 부서는 농정연구센터가 선정되어 수상했다.

#### ‘중국농업의 현황과 전망’ 장관보고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22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중국농업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정길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농업의 변화와 중국의 쌀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오세익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원예산업 실태와 전망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 농업관측 중국, 칠레 등 해외 정보 수집 강화

## 관측정보 수집체계 개선, 신속하게 전파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1999년 배추, 무 등 9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업관측사업이 2002년부터 26개 품목으로 확대해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엔 해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측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해 관측 월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농업인들과 생산자 단체의 영농과 출하계획, 농산물 유통업체의 사업계획,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농산물 수급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칠레의 과일모니터를 확보하고, 중국의 관측모니터를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미국 농업정책연구소(FAPRI),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를 비롯 해외 농업연구기관, 대학 등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더욱 해외정보 수집체계를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측정보의 수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표본농가를 개설계하고, 국내모니터의 정보수집 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품목별 소비정보 수집을 위한 소비자 패널을 구축해 조사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측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Pushmail 등을 활용해 분신체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태풍, 폭설 등 긴급사안 발생시 월보 또는 분기보 외에 속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관측정보의 내실화를 위해 농림정보 및 통계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관측정보 portal 서비스로 효과적인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관측정보는 채소 9개 품목(배추, 무, 고추, 파,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과일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과채 6개 품목(오이, 호박,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축산 5개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이다. 채

소, 과일, 과채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육계는 매월, 축산은 분기별로 관측결과를 월보, 분기보 등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ARS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지 연구원, 농림부 등 농업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산림정책연구실에서 반관측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부터 표고관측정보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외인 주제로 KREI 교양강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

해 지난해부터 열린 KREI 교양강좌를 이번에는 4월 22일 서울와인스쿨 김준철 원장을 초청, '와인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날 교양강좌는 와인에 대한 일반 상식을 비롯 와인과 건강의 연관성, 매너 등 와인 이야기를 다양한 내용으로 2시간여에 걸쳐 강의한 뒤 와인 시음회를 가지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 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 중, 농업통계정보검색 세미나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4월 14일과 23일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경호 중국농업통계정보전문가를 초청해 '중국어 홈페이지에서 농업통계검색 및 활용방안'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 日, 농림수산성 직원 내원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생산정책실장 등 4명이 지난 4월 6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최세균 선임연구위원과 김태곤 부연구위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식량정책, 농업·농촌종합대책, 한일 FTA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쌀협상, 2005년 연구사업 방향 자문

##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개최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을 4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은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004년 쌀협상과 내년도 연구사업에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자문을 받았다.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는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은 15개 일간지

논설위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우리 연구원이 농업문제를 함께 나누고 풀어가고자 2002년에 만들어 그동안 주요현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연

구자문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은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박성계 기획조정실장이 2005년도 연구사업의 기본 구상을 밝힌 뒤, 서진교 부연구위원이 '2004년 쌀 협상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논설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 KREI 가족모니터 제도 구성해 운영

## 홈페이지 통해 연구원과 직원가족 이해의 장 만들어

우리 연구원은 직원들의 가족을 연구원의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직원 가족과 연구원과의 관계를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연구원은 가족을, 가족은 연구원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로 5월 중순부터 가족모니터 제도를 운영키로 하였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원내 사이트 AGRF를 통해 직원들에게 가족모니터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당부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 요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KREI 가족모니터는 직원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KREI 가족모니터 요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과 함께 홈페이지 개선시 의견제시나 평상시 홈페이지상의 오류 등을 점검하여 운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이 보다 정확하고 고객 지향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위촉과 함께 '홈페이지 모니터 사랑방'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여자 평가조사와 로딩속도 조사 등 모니터를 적극 유도해 최근까지 460여건의 모니터와 답변이 이뤄졌으며,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버용량을 증설하는 등 수여자 요구를 사이트 운영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

## 농지, 식품 주제 농경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4월 7일 중회의실에서 농지를 주제로, 4월 14일엔 식품을 주제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7일 개최한 농경토론회에서 박석두 연구위원은 '지가하락시기 농지제도의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 현황과 쟁점, 지가하락시기 농지제도의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송미령 부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 도입과 계획적 관리'란 제목의 발표에서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과 국

토계획법 도입에 따른 농지관리제도의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발표한 뒤 황의식 연구위원 주재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또한 4월 14일 개최한 농경토론회에서 최지현 연구위원이 '세계 식품안전 문제의 접근방법(세계동향과 국내 적용)'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안전문제의 논의 배경과 세계 식품안전문제의 접근 동향, 식품안전관리체계연구의 새로운 접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 농단협과 간담회 가저

우리 연구원은 4월 7일 함지박에서 농정현안 논의 및 2005년 기본연구과

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단협 최준구 회장, 유동준 후원회장, 신동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환 원장 사회로 열려, 허장 연구위원이 연구원의 현황과 내년도 연구사업 방향에 발표한 뒤, 농정현안과 2005년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농단협 최준구 회장과 유동준 후원회장은 앞으로 연구원이 축산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비농업계에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부탁했다. 또한 연구원이 환경농업체제 전환과 관련한 연구는 때의 시의적절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널리 홍보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연구원 비전 5월말까지 설정

## 연구원 MI 설정 위한 간담회 가저



지난 4월 17일 연구원 MI 설정을 위한 부서장 간담회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

당초 6명의 CI 실무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하고, 16일 확대 회의를 개최해 KIST CI 매뉴얼을 함께 본 뒤 향후 실무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연구원은 4월 13일과 16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연구원 CI(연구원 이미지 통합) 제작을 위한 CI실무추진위원회의를 갖고, 4월 17일에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부실장들이 모여 CI의 토대가 되는 연구원 비전, 미션, 원훈 등 연구원 MI(Mind Identity)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4월 12일 CI 실무추진위원회에서 CI에 대한 개념 확산과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활발한 토론을 위해

또한 4월 17일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원의 비전, 미션, 원훈 등에 대해 5시간여에 걸쳐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향후 부서별 수련회에서도 연구원의 MI에 대해 토의해 지속적으로 연구원의 MI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CI 실무추진위원회는 앞으로 5월말까지 연구원 비전, 미션, 원훈 등을 설정해 올 연초에 계획한 연구원 CI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꿈은 이루어진다

이 정 환 원장

개원기념일을 맞아 우수 과제상을 받은 분들을 축하드리며 특히 14개 연구기관에서 나온 100여개 이상 과제 중에서 경사연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연구성과 확산 위해 노력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연구원도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Supply Chain Management' 혹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 올해부터 기조실에 성과관리팀을 두어 우리의 연구성과물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더욱 노력하려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작년부턴 베스트셀러 상을 만들어서 유료 판매 실적에 가장 많은 보고서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려 베스트셀러 상을 수상한 보고서 집필진에게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배후에서 도와준 두 분께 우수 직원상을 수여하고, 효행으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고 따뜻하게 해 준 분께 포상을 했습니다.

연구원에 몸담아 10년, 20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청춘을 받쳐서 일하신 분들에게 여행권을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날을 택하여 또 한 번의 허니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지식 정보 통합시스템인 AGRE 시스템을 개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IT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의 공유, 커뮤니케이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조기도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GRE에 많은 정보를 올려주신 분들은, 자기의 고유 업무이건 아니건, 이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이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자신감 갖고 변화 능동대처

우리는 작년에 개원 4반세기를 맞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지며 이제부터 더 자랑스런 25년을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5년의 첫 해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탐구와 협동하는 문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1년이 지나서 내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성과와 감화를 가지게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정비 사업을 끝내고 내년 초에 서쪽 공간을 잘 정비하면 아마 우리 연구원의 시설환경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연구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일년 동안 노력하여 AGRE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일류 IT 경영 기관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면 상당한 폭의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활성화 시키고,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특권도 배제하여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직장분위기도 일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정체성 확립, 목표 향해 정진

이제 필요한 것은 작년 수련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과연 우리 연구원의 임무와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농업인에게 인정된 삶,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품을, 도시민에게 쾌적한 농촌 공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정체성을 공유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힘이 결집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정, 탐구, 협동, 신뢰의 문화가 정착되고 냉소주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대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 위험과 기회를 일리는 대신 저로서의 역할, 선택의 대안과 선택의 결과를 제시하는 이정프로서의 역할, 가야할 길과 가야하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무엇인가? 저는 농업부문은 물론이고 비농업부문, 정부,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연구원, 그리고 가장 다니고 싶은 연구원이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연구자, 긍지 있는 직장인이 되는 그런 비전을 그려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년 이 자리에 어떤 비전과 임무와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성과를 가지고 모일지 다같이 기대해 봅시다. <

# 최근 쌀 협상 동향: 주요 이해당사국의 관심 사항 전망

서진교 부연구위원

정부가 쌀 협상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통보당시 우리나라는 GATT 28조 관련 1980년 협상절차 규정을 참고하여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90일 이내 협상참가의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번 쌀 협상에 참가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호주, 타이,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 등 총 9개국에 이른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에는 본격적인 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등 9개국 협상참가 표명

쌀 협상은 이해당사국별 하는 양자협상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관심 사항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9개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2004년 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제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1주일에 한 국가씩 만나 협상을 한다고 해도 9개국 모두를 한 번씩 만나면 두 달이 훌쩍 지나가버린다. 7월말부터 8월 초까지는 휴가철이다. 결국 실질 협상기간은 9개국 모두를 동시에 만나고 해도 결코 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연히 보다 큰 비중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전략적으로 분류해 협상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중이 작은 국가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관세화로의 전환이 아닌 이상 최종 결과는 모든 참가국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쌀 협상은 이 단계부터가 시작된 셈이다.

## 인도, 타이 등은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에 관심

우리의 주석인 쌀이 자포니카 쌀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협상 상대국이 될 것이고, 호주와 이집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태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는 인디카 쌀을 생산 수출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해당 쌀의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가공용 또는 최근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동남아출신의 해외근로자들의 식용수요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쌀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당한 양을 수입해 국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는 가공하여 쌀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된 식품가공 산업에 기초하여 쌀 가공제품의 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

쌀 협상의 핵심 당사국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자포니카 쌀 생산은 전체의 25% 안팎이고 캘리포니아주가 그 75%를 담당하고 있다. 자포니카 쌀의 수출비중은 생산의 45~50%이고 2003/04년의 경우 약 110만 톤의 자포니카 쌀을 수출하였다. 110만 톤의 수출 중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3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대략 절반에 이른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자체가 미국내에서 농산물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주이기도 하다.

반면 향후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은 물 부족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중국 동북지방의 쌀과 가격면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한편 중국은 한 해 쌀 생산량이 1억 7,000~8,000만 톤에 이르는 명실 공히 세계 제1의 쌀 생산국이다. 자포니카 쌀은 주로 동북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흑룡강성 하에서 생산되는 쌀이 약 900만 톤이고 길림성과 요령성을 합하면 1,700~1,800만 톤에 달한다.

물론 이중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소비된다. 자포니카만을 따로 구분한 수출 통계가 없어 중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35~5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재배면적 감소와 자연재해가 겹쳐 동북 3성의 쌀 생산량이 1,500만 톤을 밑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쌀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저렴한 노임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 만큼은 미국산 보다 앞서 있다.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녹색식품 표준에 따른 고급 쌀 생산추세도 한국, 일본, 대만으로의 쌀 수출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조치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내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 증대와 농업용수의 제약, 대두 등 타 작물로의 경작전환에 따른 쌀 재배면적의 감소, 농민의 비농업 취업기회 확대와 도시로의 이농, 탈농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등 중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도 있다. 특히 중국의 쌀 수출이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아래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중앙정부는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국내 재고비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상대국 쌀산업 분석이 중요

관세화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쌀 협상에서 수출국들에게 수용 가능한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DDA 농업협상의 부진으로 관세화와의 비교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쌀 협상의 여건 아래서 쌀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상 참가국별로 그 나라의 쌀산업 현황과 특징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의 주된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중요하다. <

#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도모

일본은 WTO나 FTA에 의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년 4월부터 농림수산물성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또 국회도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소위 정치, 행정, 생산자 등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FTA 체결에 노력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FTA는 싱가포르와 2002년 11월부터 발효 중에 있으며, 멕시코와의 협상은 최종 합의한 후 2005년 1월부터 발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과 현재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지자체, 수출촉진협의회 설치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 일본산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수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의한 새로운 시장 등장과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에서 소득증가에 의해 일본의 고급 농산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독자적인 수출활동에 대해 농림수산성도 예산과 조직 양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5월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는 전국 23개현이 참가한 '농림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 동안 지자체별로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에 대해, 지자체간에 연대하거나 공동으로 수출장벽 철폐와 판로확장 활동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관세, 검역, 위생조건 등 제도개선 요망, 해외 박람회, 상담회,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 47개현 중에서 27개현으로 늘어나고 있다.

## 농림수산물성, 수출지원예산 증액

한편, 농림수산물성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약 8억 400만엔을 신규로 확보하여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수출가능지역 조사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또 금년 4월부터는 예산과 조직 양면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예산면에서는 생산자가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수출의향이 있는 생산자의 해

외 시장개척 파견, 해외 세미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프로젝트 결성에 의한 상품별 수출사례 구축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전시회, 상담회, 시험수출 등 수출촉진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소요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한 외국의 무역제도 조사활동에 지원,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쌀 수출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가 실시하는 일본쌀 수출가능성 조사, 수출상대국별 일본쌀 소개 등 판매촉진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를 포함한 판매처 정보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대응하는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자생산미화를 위한 출하시설이나 신선도 유지시설과 같은 공동이용시설 도입에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면에서는 금년 4월 농림수산물성 무역관세과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산업성, JETRO, 지자체, 그리고 국외조직 등과 입체적으로 연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소량다종 상품에 일본 식문화와 연계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유망 품목으로 고급 제품인 쌀과 쇠고기, 과일, 채소, 화훼, 차, 어패류, 목재, 유제품,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 등과 같은 소량다종 상품이 중심이다.

쌀은 대만, 홍콩, 미국 등에 최근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사과와 배는 대만, 홍콩,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딸기는 홍콩으로, 녹차는 미국으로, 연어는 중국으로, 가리비는 유럽으로, 모란은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목재는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박람회 등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대폭적인 수요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출정책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특산물 수출활동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성과 JETRO 등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향후 '일본 브랜드'를 확립하여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특구제도'를 도입하고, 또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현재 캐나다와 호주 등이 성과를 높이고 있는 '수출보드'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수출기반을 정비한 후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문화 개방에 따른 일본 식문화 보급을 적절히 연계한다면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대아시아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 쌀 재협상 본격화...“국민합의·실리추구” 여론

美, 中 등 9개국 참가, 내달 초 시작

지난 1월 우리 나라가 WTO에 쌀 재협상 의사를 전달한 뒤 호주가 첫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어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미국,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이 우리 나라에 쌀 재협상 의사를 통보해 읊으르써 올해 최대 농정현안인 쌀 재협상이 본격화되었다.

내달 초 우리 나라와 양자협상에 들어갈 9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관세화 개방과 관세화 유예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쌀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협상에 앞서 농업인 설득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협상전략을 강조하였다.

특히, 언론들은 정부와 농업계 및 경제계 등이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이는게 협상 성공의 열쇠라는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주문하였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일단 관세화를 다시 10년 유예받는 대신 연간 의무수입물량을 지금의 4%에서 매년 0.25~0.5%씩 올려주는데 협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전농은 쌀 관세화 유예 관철은 물론 의무수입 물량도 현재의 4%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쌀개방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7대 국회 농민운동가 3명 입성...농정변화 전망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인기 전 농림부장관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비롯해 박홍수 전 한농연회장, 강기갑 전농부회장, 현애자 전여농 제주연합 남제주군여성농민회장이 국회에 입성하는 등 농민운동가 3명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농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언론들이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재협상 등 농업개방을 둘러싸고 농업정책 조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농정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칠레 FTA 공식 발효

우리 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 칠레 FTA가 4월 1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한국과 칠레 양국이 99년 9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4년 4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자유무역을 실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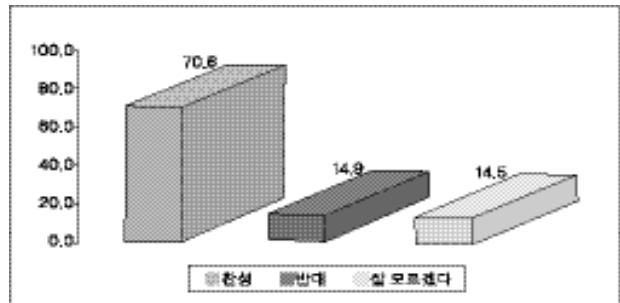
언론들은 이날 한 칠레 FTA가 공식 발효된 것과 관련한 보도에서 우리나라 첫 FTA가 발효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산품 수출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해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이번 협정체결 과정에서 농업계 반발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진행될 FTA에서는 협상 진행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전농은 4월 1일 한 칠레 FTA 발효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책은 온데 간데 없고, FTA가 공식발효 되었음에도 정작 이행지원대책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농지제도 개편 농민 10명중 7명 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29일 전국 농민 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농업인 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농민 중 70.6%인 610명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 〈중앙〉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



이밖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로는 ‘국제농업 협상에 적극 대응’을 최우선으로(19.1%) 꼽았으며, 119조 투융자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복지, 환경 등 농촌에 대한 투자중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2.8%로 나타났다.

개방에 따른 일괄적인 지원책 제시와 개방문제에 농업계의 유연한 입장을 얻어내는 이른바 ‘빅딜’ 또는 ‘대타협’ 주장에 대해서는 과반수(55.1%)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개방과 관련한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WTO 농업협상, 쌀 재협상, FTA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개방화에 대응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거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농업인은 10명중 7명 정도(69.5%)로 나타나 상당수 농업인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 권태진·최세균 박사 선임연구위원 임명

## 4월 정기인사단행 12명 승진·발령



권태진 박사

우리 연구원은 4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 선임연구위원에 권태진, 최세균 박사를 임명하는 등 총 12명을 승진·발령했다.



최세균 박사

이번 인사에서 연구위원에는 김창길, 이용선, 임승수, 정정길, 허장, 황의식 부연구위원 등 6명을, 부연구위원엔 김철민 전문연구원 등 3명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신임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위싱턴주립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북한농업연구실장을 지낸바 있고 북한농업과 환경농업 분야 연구 전문가이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퍼듀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국제농업연구실장을 지낸바 있고, 농산물 무역, 지역협력, FTA·WTO 협상분야 연구 전문가이다.

을 수립하는 위원회이다.

### ■ 연구진 동정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4월 12일에 농업기반공사 경영혁신팀을 대상으로 '농업비전과 농정과제'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4월 21일 남북경협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3월 31일 일본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일 FTA 추진 동향과 한국 농업'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정기환 연구위원은 UNFSCAP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 국별 현지 워크숍을 갖고자 4월 17일 태국으로 출국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을 거쳐 5월 23일 귀국한다.

△전창곤 연구위원은 4월 1일 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공판장 발전전략'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신승열 연구위원은 4월 8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한우 전문 지도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곤 부연구위원은 4월 22일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주최한 '세계곡물수급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박문호 부연구위원은 4월 13일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에서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또한 4월 22일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초청으로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RPC 중심의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 연구원 인사

△〈승진〉 선임연구위원 권태진, 최세균, 연구위원 김창길, 이용선, 임승수, 정정길, 허장, 황의식, 부연구위원 김철민, 전문연구원 김성우, 김윤형, 성주인

### 보육센터, 한국인칼군연구소 졸업

우리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3년간 보육을 마친 한국인칼군연구소의 졸업증서 수여식이 지난 4월 9일 원장실에서 있었다.

### 원장, 한·일농업경제학회 참석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자격으로 일본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3월 30일과 31일 일본대학에서 '한·일 양국의 WTO/FTA 전략과 농산물 무역문제'란 주제로 개최한 한·일공동심포지엄에 참석코자 3월 2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4월 1일 귀국했다.

### 박대식 박사, 고령화·미래사회 위원

우리 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은 2004년 3월 22일자로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미래사회 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 문석남 경사연 이사장 내원



경사연 문석남 이사장에게 올해 연구원 운영과 연구추진계획 보고

지난 4월 2일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 올해 연구원 운영과 연구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정환 원장의 인사에 이어 박성재 기획조정실장이 올해 우리 연구원의 운영계획과 연구 방향,

주요과제 추진 계획 등을 보고 한 뒤 문석남 이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문 이사장은 연구원 부서장과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 보고

회에서 그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를 위한 소중한 연구를 해 줄 것과 인식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그리고 경사연이 추진하는 명예연구위원제도 도입의 추진상황과 부원장 지방연구원 방문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